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배포일시	2019. 7. 4.(목) 총 5매(본문3)		
담당 부서	건축문화 경관과	담당자	·과장 이경석, 사무관 북상규, 주무관 차동욱 ☎ (044) 201-3779, 3781		
보도일시		2019년 7월 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4.(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제3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울 성동구 · 인천시 영예의 최우수상 수상

- [서울 성동구] 주민과 함께 지역 건축자산 활용 마을 브랜드화 성공 -
- [인천시] 부서 간 협업으로 경관기록시스템 성공적 구축 -

- 제3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사업’과 인천광역시 ‘소통과 협업을 통한 경관기록체계 구축’이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경관행정의 효율성 제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행정 사례를 지속 발굴·공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경관학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17년부터 개최해왔다.
-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모하여 접수된 18개 작품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 신지훈 교수)에서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를 실시한 결과,
 - 최우수상 2점(국토교통부장관상 2점), 우수상 5점(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2점, 한국경관학회장상 3점) 등 총 7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시 성동구는 ‘성수동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사업’을 주제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저층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성수동 내 붉은벽돌 건축물을 주민과 함께 보전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 건축자산을 활용한 성공적인 마을브랜드 구축 사례로서 호평을 받았다.

<p>→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항목에 의거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한 지원세부내용을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붉은벽돌 사용 가외에 면한 외벽면의 붉은벽돌사용 또는 기존의 붉은벽돌 외벽 및 담장보존시 지장재료 사용 붉은벽돌 사용연계를 제외한 벽면에 지장재료 사용시 (단, 붉은벽돌사용 항목 준수 시 적용가능) 지장석 사용 붉은벽돌 사용연계를 제외한 벽면에 지장석상 사용시 (단, 붉은벽돌사용 항목 준수 시 적용가능) 간판, 옥상 및 기타 구조물 처리 광고물 설치 배치 가로연결 비율 연속된 가로 조성을 위해 건축한계선에 1/20이상 경사도록 유도 1층의 입면 구성 수직분할요소 제시(2~5m 권장) 가외벽면의 연속성을 위한 오픈구간 확보(10m 이내) 외부공간의 구성 담장, 공지배치, 벤치 및 화단 등 벽체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붉은 벽돌 벽체의 붉는 점수에 관한 사항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시 	
<p>붉은벽돌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p>	<p>지원 사례</p>

- ‘소통과 협업을 통한 경관기록체계 구축’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천시는 그간 「인천광역시 경관조례」에 따라 추진중인 경관기록화사업의 결과물을 데이터(DB)화(도시경관 변천기록 아카이브)하면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경관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또한, 이를 화보와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시 홍보 및 도시경관정책 수립, 관련 학술연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우수상은 ‘함께하는 디자인 고객디자인단’ 한국도로공사, ‘태안해안국립공원 연안생태계 및 경관개선’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대표적인 혐오시설 지역 행복충전소로 국민에게 활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예측가능한 행정을 위한 광명시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광명시, ‘대전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대전시가 수상하였다.

□ 국토교통부 이경석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작년에 이어 3회째인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이번에도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등 경관행정을 혁신하고자 하는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였다”라고 평가하며,

- “경관과 관련한 우수 사례들을 발굴하고, 공유하여 경관 업무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에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대한민국 국토대전’과 함께 ‘제3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복상규 사무관(☎ 044-201-377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제3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내역

구분	상훈	작품소개 및 선정사유
국 토 부 장 관 상	최우수상	<p>(작품명) 소통과 협업을 통한 경관기록체계 구축(인천시)</p> <p>(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제32조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경관기록화사업의 지속적 유지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관리시스템 개발 및 협업체계 마련</p> <p>(선정사유) 변화하는 도시경관을 기록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과 시민의 참여 과정이 돋보임</p>
		<p>(작품명) 성수동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사업(서울시 성동구)</p> <p>(주요내용) 과거 경공업 중심지로서 지역·역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수동 내 붉은벽돌 밀집구역을 다양한 행정지원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보존·활용해 나가고 있음</p> <p>(선정사유)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 저층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붉은 벽돌 건축물을 보전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상징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임</p>
경 관 학 회 장 상	우수상	<p>(작품명) 함께 하는 디자인 ‘고객디자인단’(한국도로공사)</p> <p>(주요내용) 모두가 공감하는 고속도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디자인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고객디자인단’ 운영</p> <p>(선정사유) 고속도로 시설 개선을 위해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노력이 인정 됨</p>
	우수상	<p>(작품명) 태안해안국립공원 경관행정 우수사례_연안생태계 및 경관개선(태안해안국립공원 사무소)</p> <p>(주요내용) 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되어 방치되고 있는 인공 구조물의 생태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태계의 자연적인 회복을 촉진하는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국립공원 경관가치 향상에 기여</p> <p>(선정사유) 해안형 국립공원의 훼손지를 과학적인 기법으로 복원하고자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자연경관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돋보임</p>

건 축 도 시 공 간 연 구 소 장 상	우수상	(작품명) 대표적인 혐오시설, 지역 행복충전소(Happy-Station)로 국민에게 활짝(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요내용)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고있는 수도권매립지를 지역과 상생하는 가치있는 휴식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야생화단지 조성 및 다양한 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해 국민쉼터 제공
		(선정사유) 지역의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공간을 지역 주민과의 소통차원에서 야생화공원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 돋보임
	우수상	(작품명)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한 광명시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경기 광명시)
		(주요내용) 기존의 광명시 기본경관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경관계획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
		(선정사유) 경관계획을 바탕으로 도시특성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경관 위원회의 운영과 도시경관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됨
	우수상	(작품명) 대전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대전시)
		(주요내용) 근대문화유산 주변 경관관리 강화(역사문화자원 내 보행 네트워크 구축 등)로 지역문화 및 경제 활성화 도모
		(선정사유) 원도심에 산재해 있는 근대 건축물을 복원하고,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이 인정됨